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청 장성군수

“친환경 신도시·부자 농촌 건설”

“군민 화합속에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꾀하는데 군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구립 19일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청 장성군수는 군민들의 대 화합을 바탕으로 “친환경 신도시,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한 주시회와 장성군의 재창조를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동적인 지역발전

이를위해 올해 군정방향의 슬로건도 ‘화합하는 군정, 발전하는 장성’으로 정하고 군민화합과 경영행정의 실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군민들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는 ‘현장 고객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도 군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전자입찰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

다. 이 군수는 특히 27년간의 교육행정 경험을 살려 영여타운 조성과 방과후 학교 운영, 우수고교 육성을 통해 관내 중·고교의 실력향상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또 친환경 첨단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며 특히 농민 생존권 차원에서 농업직접예산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논농업직불제 이외에 소규모 경작농에게도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생물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최고급 브랜드 쌀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유통체계 개선을

중·고교 실력향상 앞장

위해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하고 가공·저장·유통 및 마케팅은 전문가들이 맡는 ‘농업기반지원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따뜻한 생활복지 구현 역시 이 군수가 관심을 갖는 분야다. 경로당을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경로복지공동체’ 구상이 대표적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차매·중풍·요양을 위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도 연내 가시화된다.

문화콘텐츠 사업 육성

이밖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흥길동 TV애니메이션, 만화출판, 극장용 영화제작 상영 등 문화콘텐츠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장성을 이 분야 메카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 군수는 “오는 7일부터 SBS를 통해 TV애니메이션 ‘흥길동 어드벤처’가 방영된다”며 “이를 계기로 DVD 출시와 팬시·인형·완구류 등 50여종의 캐릭터 상품이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설원 변신’ 보성 차밭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폭설로 보성 차밭이 티끌 하나없는 새하얀 은백색 눈꽃 나라로 변모했다. 보성에는 새해를 맞아 설원의 녹차밭 풍경과 희천면 북재에 설치된 은하수 터널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kwangju.co.kr

대불산단 쓰레기 매립장 합의

영암군·주민 7년 협상 타결...연초 착공

영암군이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7년간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영암군은 지난 2000년부터 삼호읍 난전리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19만5천50㎡에 2만3천㎡ 규모의 1단계 매립장 공사가 착공된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이 매립장은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완전 연소 후 발생한 소각재 가운데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는 재만 매립하게 된다.

그러나 영암군은 지난해 연말 최첨단·친환경 설비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키로 주민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가장 안정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삼호읍 난전리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19만5천50㎡에 2만3천㎡ 규모의 1단계 매립장 공사가 착공된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이 매립장은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완전 연소 후 발생한 소각재 가운데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는 재만 매립하게 된다.

영암군은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예 감독관 및 유급 환경감시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영암사랑 상품권’

지역경제의 효자

‘영암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6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2월부터 발행된 영암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연말까지 6억 300만 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맹점이 군내 11개 읍·면 409개소로 확대되면서 상품권 판매가 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나주출신 여수성심병원 박순용 회장

나주북초에 급식비 1천800만원 지원

폐교 위기에 놓였던 나주의 한 초등학교가 독자적으로 전교생이 무료급식을 지원 받는 등 활력을 되찾고 있다.

나주가 고향인 박순용(69) 여수성심병원 회장은 구립 28일 전교생 급식비 1천800여 만원을 나주시 청



동리 북초등학교(교장 김경남)에 전달했다. <사진>

나주 북초등학교는 전교생이 61명에 불과한데다 올해 10여명이 졸업하게 돼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박 회장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후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지역주민들 사이에 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함평 나비 엑스포’ 기념 만화 출간

‘스윙’ 총 10권 제작

나비·곤충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엑스포인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기념하는 만화가 출간된다.

‘스윙’이라는 제목의 이 곤충만화는 총 10권으로 엑스포 기간까지 3권이 제작되며 곤충제국을 지키려는 수호천사들과 파괴하려는 정체 모를 무리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 이어 질서와 평화를 되찾아 가는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우리만화 작가상(2001년)과 우수만화상(2002년,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수상한 박영철씨가 작가로 참여하며 KBS 애니메이션 스토리작가 팽정우씨 등 총 13명이 제작진으로 나선다.

지난해 11월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이 진행중인 이 만화는 국내 최대 유통망을 자랑하는 예림당(종이비행기)에서 출간한다.

조직위원회는 내년 3월 출간기념회 및 작가 사인회를 갖고 온라인 서

점과 대형 할인점 등 전국 1천500여 곳에서 동시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 다.

나비축제 10년째이자 ‘함평’ 개명(開名) 600주년을 맞아 열리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라는 주제로 함평읍 엑스포공원 109만㎡ 부지에서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 동안 열린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영암 신북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올해 영암 신북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된다.

영암군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3억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신북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육상트랙을 설치한다.

/박진표기자 lucky@

강진 앞바다 바라보며 ‘티샷’

신전면에 27홀 규모 골프장 내년 착공

강진군 신전면 일대에 27홀(134만㎡) 규모의 해안 조망형 골프장이 들어선다.

신전 골프장은 올해 부지매입과 설계, 인허가 등을 거쳐 내년 착공, 2009년 말 완공된다.

골프장 건설사업에는 민자 730억 원이 투입되며 ㈜금아산업(중

남 천안)이 공사를 맡는다.

강진군은 신전골프장이 들어서면 이미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강진골프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 골프장은 신전면과 인접한 도암면 신기리 일대 150만㎡ 부지

에 27홀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특히 이 지역은 주민 반발로 골프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역과는 달리 군과 주민이 함께 골프장 유치에 나선 점이 특징이다. 군은 일약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3년 전부터 10차례가 넘는 주민 설명회를 열어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 일대는 다도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연중 기온이 따뜻해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with text: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and images of various household items.

Advertisement for a water heater with text: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and an image of a water heater.